



## SAN FRANCISCO OPERA

샌프란시스코 오페라 음악 감독으로 임명된 김은선 씨



“...놀라운 공명과 자신감으로 넘치는 컴퍼니 데뷔...”

—Joshua Kosman, San Francisco Chronicle

“...[휴스턴 그랜드 오페라에서]“라 트라비아타”의 주요 스타였던 김은선 ...

뛰어난 감성과 유연함으로 공연을 이끌다...”

—James Oestreich, The New York Times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2019년 12월 5일)** — 지휘자 김은선 씨가 2021년 8월 1일부터 샌프란시스코 오페라(SFO)의 Caroline H. Hume 음악 감독을 맡게 된다. 이 임명은 오늘 전쟁 기념 오페라 하우스에서 SFO 총감독인 Matthew Shilvock 씨가 발표한 내용이다.

김 씨는 오케스트라, 코러스, 음악 스태프를 이끄는 샌프란시스코 오페라의 역대 네 번째 음악감독으로서 공연과 캐스팅 분야에서 총감독 Matthew Shilvock 씨, 예술 관리 감독 Gregory Henkel 씨 및 오페라팀의 기타 일원들과 협력하게 된다. 또한 김 씨는 컴퍼니의 창의적 리더십의 주요 일원으로서

컴퍼니의 두 번째 100년의 예술적 방향을 책임지고 컴퍼니의 젊은 아티스트 프로그램과 긴밀히 협력하며 베이 지역 관객들에게 근사한 오페라를 선사하게 된다.

김 감독의 임명은 Shilvock 씨와 Henkel 씨의 포용적인 탐색 이후 조직 내 모든 부분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공유해 이루어진 것이다.

김 씨는 음악 감독 지명자가 되어 향후 시즌과 오케스트라 오디션 계획에 참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그는 2020~2021 시즌 오프닝으로 컴퍼니의 새 프로덕션인 베토벤의 *피델리오*를 지휘할 예정이다.

음악 감독으로서 그는 최초 5년 계약의 시즌마다 최대 4회의 프로덕션을 지휘하게 되며, 공연 지휘뿐 아니라 Adler Fellows와 협력하며 조직의 경영진 리더십에도 참여하게 된다.

김 씨는 2019년 6월 드보르작의 *루살카*로 SFO에 데뷔했으며 이후 SFO 지휘는 내일 [12월 6일 금요일 오후 7:30시](#)에 SFO의 레지던트 아티스트인 2019 Adler Fellows가 펼치는 연중 마지막 공연에서 엿볼 수 있게 된다. 샌프란시스코 오페라의 2020~2021 시즌에 대한 전체 정보는 1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김 씨는 다음과 같은 소회를 밝혔다.

*“샌프란시스코 오페라 첫 무대에 섰을 때 저는 고향에 있는 것 같은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컴퍼니의 아주 다양한 측면에서 열려 있는 협업, 진정한 프로페셔널의 연금술과 같은 신기한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샌프란시스코 오페라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어, 이 놀라운 유산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게 되어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SFO 총감독인 Matthew Shilvock 씨는

*“김은선 씨는 샌프란시스코 오페라에 독특한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는 사려 깊은 리더십, 깊은 공감과 극장의 모든 이에 대한 놀라운 존중을 통해 하나의 예술적 여정을 추구하는 가운데 청중과 아티스트, 테크니션과 관리자 모두를 연결해 줍니다. 지휘대에서 뛰어난 비전을 통해 리드할 뿐 아니라 창의적인 과정에 있어 모든 사람을 환영하고 모두가 최고의 역량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창조된 예술은 빛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인간으로서 산다는 것의 핵심과 깊이 연결되는 음악을 만들 수 있는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차기 음악 감독으로 은선 씨를 환영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이 음악 감독직의 이름을 딴 자선가 Caroline H. Hume의 자녀이자 SFO 이사회 부회장인 George H. Hume은 다음과 같은 말을 전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김은선 씨가 샌프란시스코 오페라의 네 번째 음악 감독직을 역임하게 된 것을 자랑스러워하셨을 겁니다. 또한 은선 씨의 놀라운 예술성과 음악성을 존중하셨을 것이고 컴퍼니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이 이러한 직책에 오른 것에 특히 더 감회가 새로우셨을 겁니다. 저희 가족은 은선 씨를 베이 지역 예술 커뮤니티에 환영할 수 있게 될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김은선 씨는 2019년 6월에 SFO 데뷔 무대인 루살카에서 지휘를 이끌었다.

39 세로, 한국에서 출생한 김은선 씨는 유럽 주요 오페라 하우스에서 자주 무대에 올랐고 북미에서 오페라와 심포닉 연주의 통찰력 있는 해석으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지휘자이다. 그는 2017년 9월 미국 데뷔 무대로 휴스턴 그랜드 오페라에서 *라 트라비아타*의 지휘를 이끌었고 이후 25년 만에 컴퍼니의 첫 번째 주요 게스트 지휘자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달 그는 워싱턴 국립 오페라에서 *마적*으로 데뷔하고 이후 미국에서 LA 오페라, 시카고 리릭 오페라와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의 컴퍼니 데뷔를 앞두고 있으며 지난 4월 휴스턴 그랜드 오페라에는 *살로메*로 복귀했다. 콘서트홀에서는 신시내티 심포니,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과 밀워키 심포니에서 지휘를 이끌었고 이후 공연으로는 뉴욕 필하모닉 및 오르간, 샌디에고와 시애틀 심포니와의 협연이 예정되어 있다.

김 씨는 테아트르 레알에서 Jesús López-Cobos 씨를, 리옹 국립 오페라에서 Kirill Petrenko 씨를 보조하며 유럽에서 공연 경력을 시작해 프랑크푸르트 오페라 극장에서 *라보엠*으로 데뷔했다. 이제 베를린 필하모닉의 수석 지휘자이자 바이에른 오페라 극장의 음악 총감독인 Petrenko 씨는 다음과 같은 말을 전했다.

“김은선 씨는 지휘자로서 필요한 진지함을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치지 않는 노력과 적절한 자기 비평적 접근을 통해 계속해서 자신의 재능을 갈고닦는 동료입니다. 지금이 바로 최근 몇 년 동안 다져온 그의 폭넓은 경험을 이제 높은 수준의 오페라 하우스에 도입하고 본인만의 예술적 비전을 실현할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김 씨의 음악 감독 역임이 샌프란시스코 오페라에 다음 음악 감독처럼 뛰어난 개성을 부여하게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김 씨의 또 다른 중요한 멘토로는 유럽 경력 초반에 함께 일해온 Daniel Barenboim 씨도 있다. 김 씨를 리허설에서 마주한 후 Barenboim 씨는 그가 음악 총감독을 역임한 베를린 국립 오페라에서 2015년에 그의 데뷔 무대를 초청했다. 김 씨는 이후 이곳에서 자주 무대에 오르게 된다. Barenboim 씨는 김 씨의 역임 소식을 듣고 다음과 같은 말을 전했다.

“김 씨의 국제적 경력의 발전을 지켜보면서 저는 항상 그가 지극한 엄격함으로 지휘자의 역할을 맡으며 그 무엇보다 그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는 음악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력의 모든 측면에서 계속해서 음악에 대한 호기심과 더 발전하고자 하는 욕구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의 샌프란시스코 오페라의 차기 음악 감독 임명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뻐고 차기 음악 감독과 컴퍼니가 최상의 결과를 거두길 희망합니다.”

향후 유럽에서는 그의 빈 국립 오페라 극장의 데뷔 무대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전에는 영국 국립 오페라, 마르세유 오페라 극장, 취리히 오페라 하우스, 왕립 덴마크 오페라, 왕립 스웨덴 오페라와 테아트로 레알에서 공연했다. 그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베를린 국립 오페라뿐 아니라 프랑크푸르트 오페라 극장 등 독일에서 특히 활발하게 활동했다. 또한 바이에른 오페라 극장, 쾰른 오페라 극장, 드레스덴 챔버 오페라 하우스와 슈투트가르트 국립 오페라의 무대에도 섰다. 예정된 국제 공연 무대로는 본 베토벤 오케스트라, 쾰거러 필하모닉, 말피 심포니, 파리 오케스트라,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과 슈투트가르트 필하모닉 등이 있다.

고향인 한국 서울에서 작곡 및 지휘를 공부한 그는 슈투트가르트 음악 및 공연예술 대학에서 공부를 이어가서 뛰어난 성적으로 졸업했다. 졸업 직후 그는 테아트로 레알에서 열린 국제 Jesús López Cobos 오페라 지휘 대회에서 1위를 거머쥐었다.

김은선 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eunsunkim.com](http://eunsunkim.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샌프란시스코 오페라 소개

1923에 설립된 샌프란시스코 오페라는 세계 오페라 컴퍼니를 선도하는 곳으로 정평이 나 있다. 컴퍼니의 일곱 번째 총감독인 Matthew Shilvock 씨의 진두지휘 아래 샌프란시스코 오페라는 계속해서 21세기 대규모 오페라 제작에 새로운 접근법을 도입하고 커뮤니티 간에 영향을 미치는 호혜적 관계를 만들어가며 선도적인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오페라의 최초로 총감독을 맡았던 Gaetano Merola 씨와 Kurt Herbert Adler 씨는 컴퍼니의 첫 60년간 정기적으로 공연을 지휘해왔다. 1985년, John Pritchard 경이 샌프란시스코 오페라의 첫 번째 음악 감독으로 역임하고(1985-89) 이후 Donald Runnicles 씨(1992-2009)와 Nicola Luisotti(2009-18) 씨가 뒤를 이어 감독직을 역임했다. 차기 음악 감독인 김은선 씨는 2021-2022 시즌 시작과 함께 네 번째 음악 감독직을 역임하여 샌프란시스코 오페라의 100주년 시즌(2022-23)과 다음 세기를 이끌어갈 예정이다.

미 서부 해안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오페라 컴퍼니인 샌프란시스코 오페라는 전설적인 소프라노인 Claudia Muzio 씨를 주연으로 한 1932년 푸치니의 토스카 무대를 시작으로 영구적인 보금자리인 전쟁 기념 오페라 하우스를 개관하게 되었다. 컴퍼니는 또한 메롤라 오페라 프로그램과 샌프란시스코 오페라 센터(연례 레지던트 아티스트인 Adler Fellows 를 감독)의 개관과 함께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홈구장 전광판의 실시간 오페라 시뮬캐스트를 통한 야구장에서 오페라(Opera at the Ballpark)로 오페라계의 원동력이 되는 역할을 구축했다.

샌프란시스코 오페라는 커미션, 공동 커미션과 앙드레 프레빈의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제이크 헤기의 *데드 맨 워킹*, 브라이언트 쉐의 *붉은 누각의 꿈*과 존 아담스의 *닥터 아토믹* 및 서부의 아가씨 등 컨템포러리 클래식 전 세계 초연을 통해 새로운 오페라의 성장을 도운 유명한 이력이 있다. 컴퍼니에서는 또한 폴랑의 *카르멜회 수녀들의 대화*, 스트라우스의 *그림자 없는 여인*, 그리고 메시앙의 *아씨의 성 프랑수아*와 같은 중요한 작품의 미국 초연을 담당하기도 했다.

2019 년 Shilvock 씨는 기관의 교육, 다양성, 공정성 및 포용성에 대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성, 공정성 및 커뮤니티 부서의 창립을 발표했다. 이제 80 주년을 맞은 샌프란시스코 오페라 길드에서는 매년 64,000 명 이상의 학생에게 수상 경력에 빛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잠재력에 목소리를 부여한다”는 컴퍼니의 모토를 실천하고 있다.

자세한 정보는 [sfopera.com](http://sfopera.com)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언론 연락처

##### 샌프란시스코 오페라:

Shuman Associates

[shumanpr@shumanassociates.net](mailto:shumanpr@shumanassociates.net) | (212) 315-1300

Julia Inouye | San Francisco Opera

[jinouye@sfopera.com](mailto:jinouye@sfopera.com) | (415) 565-6430

##### 김은선:

Beth Stewart | Verismo Communications

[beth@verismocommunications.com](mailto:beth@verismocommunications.com) | (618) 444-3183

##### 사진 크레딧:

Marc Olivier Le Blanc (인물 사진)

Cory Weaver (공연 사진)